

제목 : <계간지를 창간하며>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내년도 12월이 되면 이 나라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의 1호일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성의 재단이 출범 10돌을 맞이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개척자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던 여성재단과 척박했던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기부문화에도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재단이 그동안 그의 기본 기능인 모금과 배분하는 일을 거듭하면서 얻은 성과는 돈, 재능, 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통해 만난 수십만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원으로 성평등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400여개의 파트너단체를 줄 잇게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단은 또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돌봄의 문화를 싹틔울 수 있었고 기부문화 확산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십시일반의 소액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기반의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었으나 아직도 큰 손들의 기부는 개인 기부가 아닌 법인인 기업기부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기부풍토라고는 할 수 없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로 불어 닥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수칙으로 부상하면서 기부시장의 규모를 크게 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직접 사업으로 소진하거나 편중된 배분으로 기부문화에도 양극화와 성차별 현상을 빚어내고 있어서 문제이다.

차제에 지금까지 재단의 미션과 활동을 홍보하는 기관지로서 발행되던 알팍한 월간 소식지를 그 발행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후한 내용의 계간지로 탈바꿈한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크게 자축할 일이다. 올바른 기부문화, 성평등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자와 파트너단체간의 나눔과 소통 그리고 여성재단의 존재의미를 사회에 제고할 계간지 발행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여성은 하늘의 절반>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여성이 경제권을 잡는 것이 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이 내건 올해의 주제가 '여성에 대한 투자'이다. 한 나라의 여성의 경쟁력이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성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견인해내는 변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서 기부문화에서의 성차별은 우선 해소되어야 한다.

남녀임금 격차가 세계 최악수준 (63개국 중 4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실정은 빈곤의 여성화를 부추기고 그리고 기부문화의 성차별은 여성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걸림돌들을 외면한 채 선진국 됨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여성운동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단체 활동 지원, 실무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에 우선 노력하는 한국여성재단의 또 하나의 10년 역사를 여는 일에 이번 창간되는 계간지가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